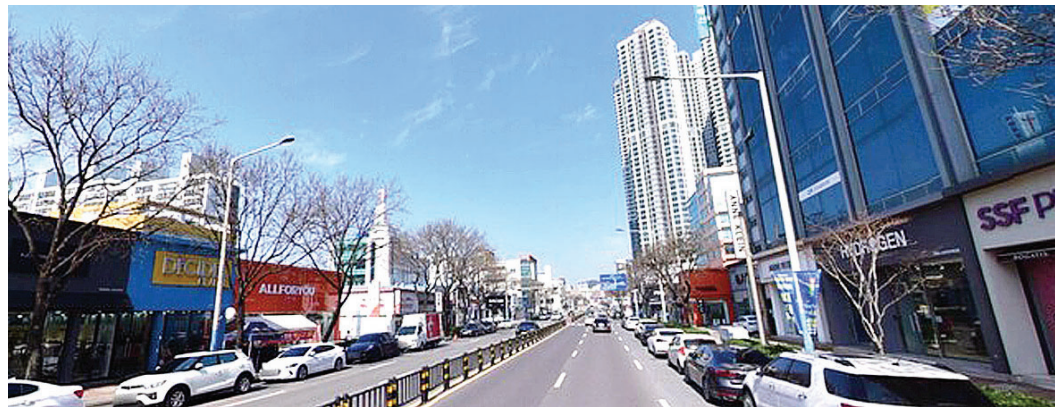


목포시 골목형상가 추가 지정...골목상권 활력 불어넣는다

상동 패션거리·동명동 아침골목상점가... 14곳 1215개 점포 확대
기준 완화 이후 첫 적용...지역사랑상품권 등 할인 구매 사용 가능

목포시가 2026년 병오년 설을 맞아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명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목포시는 상동 패션거리 골목형상점가와 동명동 아침골목상점가 등 2개소(면적 2만7496㎡,

233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목포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4개소, 1215개 점포로 확대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12월 골목형상점가 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동 패션거리.

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 이후 적용한 첫 사례다. 그동안 기존 기준으로 제외됐던 상권이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신규 골목형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및 목포사랑상품권 가맹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력해 상인 대상 순회 가맹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디지털온누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지류형 상품권은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사용처는 온누리상품권 공식 홈페이지와 '디지털온누리' 애플리케이션의 '가맹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올해 골목형상점가 20개소 이상 지정은 목표로 완화된 기준을 통해 소규모 상권을 지속해서 발굴·지정해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 농촌유학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으로 농촌유학 오세요”

지난해 초·중학생 65명 유학생할
주거·경비 확대 안정적 정착 지원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정주형 교육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년 15명이던 해남군 농촌유학생 수는 2025년 63명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현재 7개 학교에서 초등학생 46명, 중학생 17명이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남 지역 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17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해남군 농촌유학 지원은 도시학생들의 농촌 생활과 학교체제를 통한 도농 교류 확대와 농촌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남 이의 지역에서 해남으로 6개월 이상 전학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족체류형과 농가(홈스테이)형, 센터형 등으로 운영되며,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경비 지원과 함께 학교·마을 연계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게 된다.

농촌유학 가구 학생에게는 월 40만원의 농촌

유학 경비가 지원되며, 특히 해남군은 농촌유학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상거주가 가능한 4개소를 포함한 10개소의 가족체류시설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 2026년 신규사업도 확대한다. 2월부터는 농촌유학 신축 주택 거주자에게도 유학 6개월 이상 유지 시 유학생비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산면에 가족체류시설 4동을 신축한다. 농촌유학 우수 학교 2개소를 육성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촌유학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변화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태도와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며 “농촌 생활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이 늘어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와 가족이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체류시설과 경비 지원을 포함한 농촌유학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청년 정착·자립 지원 ‘맞춤형 청년정책’ 본격화

공공임대주택·활동포인트제

창업 지원 등 체감형 정책 확대

진도군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일자리, 문화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진도군은 올해 하반기에 입주가 시작되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호에 이어 2호 건립을 추진하고 ‘청년 활동 포인트제’를 새롭게 도입해 청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진도읍 교동리 일원에 총 18세대 규모로 건립 중인 청년공공임대주택 1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주거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상반기 중 입주자를 모집한 뒤 하반기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2호의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사전 투자심사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의 균형 참여와 지역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활동 포인트제’도 새롭게 도입, 추진한다. ‘청년 활동 포인트제’는 청년들이 균형 홍보, 지역 명소 소개, 청년 대상 워크숍과 교육, 지역 내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면 활동별로 점수(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일정 점수 이상을 적립하면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결혼축하금’(1쌍당 300만원) ▲출산장려금(자녀당 1000만원~2000만원) ▲출생기초수당(1~18세, 월 20만원) 등 결혼, 출산, 보육 등 전 단계에 걸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년들의 취미와 여가, 역량 강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희망청춘 아카데미’와 청

년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창업스쿨을 운영하는 한편 식품 온라인 판매를 위한 시제품 개발, 자문(컨설팅), 자금(펀딩) 등의 지원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년 취업자 전세·월세 지원(월 20만원, 최대 1년)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주택 구입 대출이자 3년간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월 10만 원 매칭 적립, 3년)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연 25만원) ▲청년 생활공구 무료 대여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청년들이 진도에서 삶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청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청년이 진도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왕인문화축제 ‘문화관광축제’ 선정

문광부 평가 2년 연속 호평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에 재선정됐다.

이번 재선정은 2024~2025년 선정에 이은 것이다. 군은 최근 2년 동안의 축제 운영 실적을 놓고 진행된 평가에서 축제의 지속성, 콘텐츠와 운영 역량 우수성 등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암왕인문화축제는 해마다 왕인박사의 국제문화교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문학 콘텐트, 야간 경관 조형 공연, 주민 참여 행사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축제 정체성을 확립해 왔다.

영암군은 이번 선정으로 내년까지 해마다 국비 최대 4000만원과 국제 홍보, 관광상품 개발, 콘텐츠 강화, 수용 태세 개선 등 문제별 종합 지원을 받는다.

이 지원을 바탕으로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중·장기 글로벌 축제로 확장을 모색할 방침이다.

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는 4월 4~12일 왕인박사 유적지와 상대포 등 군서면 안팎에서 열린다.

주말 빛꽃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빛꽃과 어우러진 자연·감성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둘째 주말에는 왕인박사 정신·역사 체험 중심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 1인당 50만원

취·창업 교육비 지원

영광군이 구직자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2026년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취업 또는 창업과 연계한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취·창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취·창업 관련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군민이며, 교육비 지원 기간 계속 영광군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월1일 이후 지출한 취·창업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비의 50%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광에서 키운 새싹인삼

일본 식탁에 오른다

현지 검증 통과 수출길 터

영광군에서 재배한 새싹인삼이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귀농 농가로 출발한 지역 농업법인이 일본 현지 검증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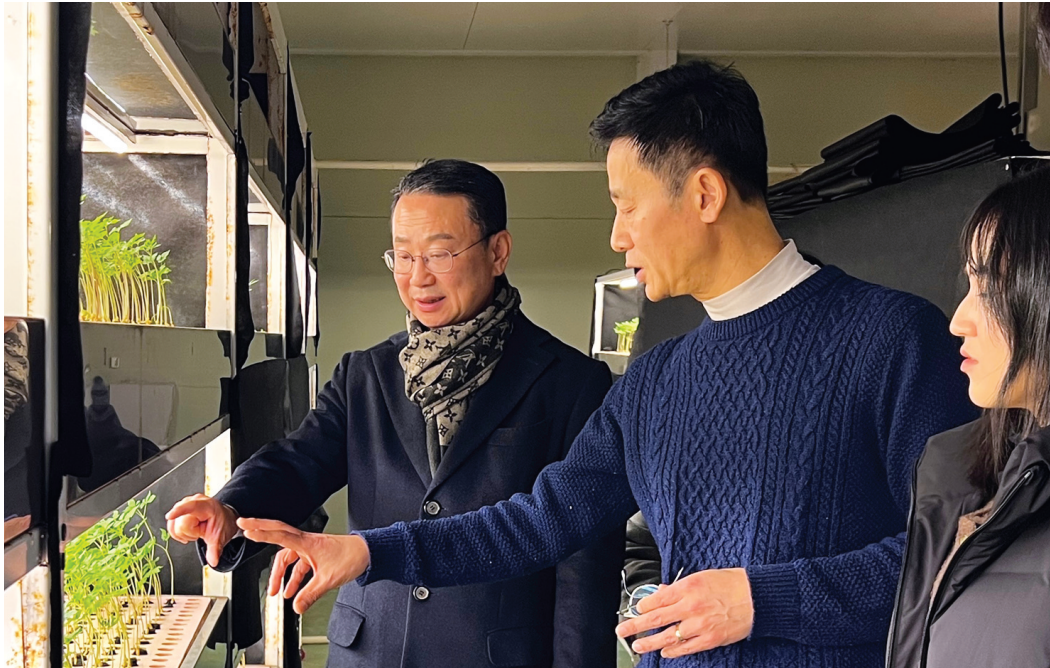
영광군은 지역 농업회사법인 (주)이로운세상(대표 양진선)이 일본 카가와현 미토요시의 농사조합 법인 다카세 차임조합과 협의를 거쳐 새싹인삼 수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여러 차례 영광을 방문해 재배시설과 위생·품질관리 공정을 직접 점검했으며, 상품성과 안정성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

(주)이로운세상은 2018년 귀농한 농가에서 출발해 법인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영광군은 융자 지원과 창업 활성화 사업, 농업기술센터의 생산·유통 컨설팅을 통해 수출 기반을 뒷받침해 왔다.

일본 현지에서는 새싹인삼이 건강 트렌드와 맞물려 수요가 늘고 있어 향후 판로 확대 가능성도



영광 지역 농업회사법인 (주)이로운세상(대표 양진선)에서 키운 새싹인삼이 일본에 본격 수출된다. 일본 농사법인 관계자들이 영광을 찾아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영광군 제공>

크다는 평가다.

영광군은 신선 농산물 특성을 고려해冷链인 구축, 운송·통관 절차 점검, 물류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안정적인 수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재욱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농가

와 법인이 축적해 온 재배 기술과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생산·유통·통관 전 과정을 촘촘히 정비해 지속 가능한 수출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홍콩으로 수출하는 신안 ‘1004굴’.

신안 ‘청정 1004굴’ 홍콩 수출 본격화

“글로벌 프리미엄 굴 시장 진출 가속”

신안의 대표 수산물인 ‘1004굴’이 홍콩을 중심으로 주 50~100kg 규모로 꾸준히 수출하며 해외 고급 식자재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홍콩을 시작으로 싱가포르·말레이시아·마카오 등 유럽·아시아 해상 교역의 핵심 관문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04굴 양식에는 신안 지역 22명의 어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4개 어가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유통이 진행되고 있다. 생산량의 약 80%는 국내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과 특급호텔 등 프리미엄 식자재 시장에 납품되고 있으며 국내 미식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0t 정도의 판매 실적에 매출액은 2억원 수준으로, 이는 신안 갯벌의 청정성과 양식 어가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홍콩을 교두보로

삼아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소비시장으로 단계적인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 고급 외식 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해 전략적인 시장 개척을 통해 1004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04굴은 사계절 판매가 가능한 품종으로 겨울철에는 국내 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비수기인 봄부터 가을까지는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유통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화 획득은 물론 어가 소득 증대와 지역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ASC 국제인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추가로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갖춘 프리미엄 굴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1004굴은 청정 신안 갯벌과 어업인의 생산기술, 국제 기준이 결합된 전략 브랜드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 K-굴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